

# 대입 수능에 환경문제 대거 출제



2006년 대입 수능에서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최근의 친환경, 웰빙 열풍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지문에서는 디젤엔진을 소개하는 내용을 실었는데 “디젤 엔진은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자동차 엔진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환경론자들이 걱정하는 디젤 엔진의 분진 배출 문제도 필터 기술이 나아지면서 점차 극복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지문은 최근 경유 승용차의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자동차 업체 간의 치열한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이누이트(에스키모)의 주거시설인 이글루를 소개하면서 온실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우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사회탐구영역 3번 문항에서는 경제와 환경의 중요도에 따른 인지도를 묻는 문제를 출제했다. 평상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은 수험생의 경우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다. 비용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공원 형태의 폐기물 처리시설, 산업단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오염이 심한데도 공장규모를 확대,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어느 것이 경제성을 중시했나, 환경성을 중시했나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다.

세계지리 3번 문항에서는 미국의 전도에서 주 단위로 표시하고 예문으로 산성비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예측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경제지리 문제에서는 폐기물처리문제로 인한 갈등, 매립장시설 개선, 폐광지 관광개발, 태양전시의 개발, 풍력 발전 대체에너지 활용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세계사 6번 문항에서는 환경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문으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이 지역은 저습지가 많아서 진·한 시대까지만 해도 화북지방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았다.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왕조가 세워지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발이 진척되어 송대가 되면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이다.

법과사회에서는 11번에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묻는 내용을 실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소송외적 방법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예문에 대해 사후적, 절차법적, 사법적 구제수단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또 15번에서는 “유해 △△식품 폐기처분하기로”라는 내용의 신문기사 내용과 라면의 표기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지,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